## 지역 소식통

### '어린이날 한마당 축제' 5일 김제 벽골제서 성료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제102회 어린이날 한마당 축제를 지난 5일 오전 10시 벽골제 쌍룡 잔디마당에서 1,500여명의 어린이 및 가족들이 모인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했다.

행사는 무대공연으로 시작해 활기찬 분위기를 조성했으며 오전 10시 전북특별자치도 도지사 및 김제 시장상 모범어린이 시상식을 시작으로 아동권리 실천을 위한 퍼포먼스도 열렸다.

이번 축제에는 가족 단위 관람객들로 행사장 곳곳이 아이들의 신나는 웃음소리와 흥겨운 분위기로 가득했다. 김제시는 어린이들의 꿈과 희망을 응원하고자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무대공연은 버블쇼, 마술쇼, 댄스공연 등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졌으며 체험부스존, 에어바운스존, 음식부스존, 와글와글 움직이는 놀이터존, 숲밧줄체험존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꾸며졌다. /김제=곽노태 기자

### 김제시, 영농철 맞아 농촌일손돕기 추진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인력난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6월까지 2개월간 '봄철 농촌일손돕기' 집중 기간으로 정하고 대대적인 농촌일손 지원을 전개한다.

일손돕기 지원 대상은 고령농, 영세농 및 소규모 농가, 과수·채소 등 수작업 인력이 많이 필요한 농가를 우선 지원하며 농촌활력과와 읍면동을 '농촌일손돕기 지원창구'로 지정 운영하여 사전에 농가로부터 일손 지원 신청을 받아 희망 기관·단체와 매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는 올해 봄철 농촌일손돕기 본격 추진을 위해 3일 박금남 농업기술센터 소장과 총괄 부서인 농촌활력과 직원 15명이 농번기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활면 한 농가를 방문해 감자 수확을 도왔고 이를 시작으로 전 부서가 농촌 일손돕기에 돌입할 예정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 백구 일반산업단지 착공식 개최

## 김제시, 특장산업의 거점으로 조성

김제시는 지난 3일 오후 2시 백구 일반산업단지 조성부지 내 현장에서 백구 일반산업단지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착공식에는 정성주 김제시장, 이원택 국회의원, 김영자 시의회의장을 비롯, 김종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 최정호 전북개발공사 사장, 김동섭 LH공사 전북본부장 등 유관기관 및 인근 지역주민이 참석했다.

백구 일반산업단지는 약 33만6,000㎡(10만평) 규모로 단지조성 및 진입도로 개설에 약 683억원을 투자하여 김제시 백구면 부용리 일원에 특장차 제1단지와 더불어 특장산업의 거점으로 조성된다.

김제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백구 일반산업단지는 2020년 산업단지계획 승인 이후 2021년 공동사업 실시협약체결, 2023년 문화재발굴조사 및 보상완료 등의 절차를 거쳐, 2026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백구 일반산단에는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뿐만 아니라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C25),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까지 입주할 수 있도록 입주업종 코드의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1단지 입주업체의 수요에 따라 특장산업의 기능 활성화를 위해 특장차검사인증센터(한국교통안전공단), 특장차종합지원센터(자동차융합기술원), 특장차 전시·판매센터를 계획하고 있어, 명실상부 국내 특장차산업을 선도할 국내 유일의 특장차전문단지가 실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타지역과 차별화된 산업단지를 조성해 공공기관과 외부기업 유치 등을 통해 김제시 경제성장과 인구유입, 세수확대 등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는 지난 3일 오후 2시 백구 일반산업단지 조성부지 내 현장에서 백구 일반산업단지 착공식을 개최했다.

# 완주군, 결혼이주여성 바리스타 교육

## 팝업스페이스 누에살롱 대관해 실습과정 운영

완주군이 오는 7월까지 팝업스페이스 누에살롱에서 완주군 내 결혼이주여성 맞춤형 직업훈련교육인 '바리스타 실습과정'을 진행한다.

지난 3일 완주군에 따르면 이번 실습 교육은 2023년 결혼이민자직업훈련과정인 바리스타 양성과정에서 바리스타 2급 자격증을 취득한 결혼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군은 이들이 카페에서의 실무 경험을 익혀 취업에 필요한 필수 기술과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교육은 메뉴 제조, 고객 응대, 포스기 사용법 등 카페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실무 내용으로 이뤄진다.

특히, '팝업스페이스 누에살롱'과 업무협약으로 토요일에는 누에살롱을 대관해 결혼이주여성이 직접 카페를 운영하게 된다.

누에살롱 카페는 4일부터 7월 6일까지 매주 토요일 10시부터 16시까지 운영되며,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교육에 참여하는 결혼이주여성은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하면 카페 일이 쉬울 것으로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어려운 점이 많았다"며 "재취업을 위한 연습이라고 생각하고, 더욱 열심히 배우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완주=염재복 기자

# '제43회 협회장기 전국남여하키대회' 김제서 열린다

## 12일까지 10일간

'제43회 협회장기 전국남여하키대회 및 제24회 협회장배 전국생활체육대회'가 지난 3일부터 오는 12일까지 10일간 김제시에서 개최된다.

이번 대회는 대한하키협회(회장 이상현)가 주최하고 김제시하키협회(회장 조정귀)가 주관하며 전북특별자치도와 김제시 후원으로 개최를 확정하고 대회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제43회 협회장기 전국남여하키대회'에는 얼마 전 진행된 2024 전국 춘계남녀하키대회에서 남자중등부 우승을 차지한 성일중과 여자대학부 우승을 차지한 한국체대를 포함한 33개 팀이 참여할 예정이고, 함께 개최되는 '제24회 협회장배 전국생활체육대회'에는 아산하키클럽을 비롯한 8팀이 참가를 확정지었다.

시는 이번 대회 개최를 위해 하키전용구장에 대해 국내공인 인증을 받고, 일부 시설물을 보강하는 등 만전의 준비를 했다. 10일간의 하키대회 개최로 선수들 및 관계자들의 김제시 대거 방문을 통해 음식업, 숙박업 등의 수요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하키 명문 고장 김제에서 이번 대회를 개최하게 되어 기쁘고, 대회 개최를 계기로 시민들의 하키에 대한 관심이 고취되기를 바란다."며 "김제시도 하키의 발전을 위해 함께 걷겠으며, 하키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목의 대회 개최 등을 통한 스포츠마케팅을 강화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는 새로운 미래 비전을 담은 도시브랜드(BI) 개발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 도시브랜드 개발 용역 최종보고회

## 김제시, 새로운 비전 담아 시정 이미지 제고

김제시는 최근 정성주 김제시장 주재로 브랜드 전문가, 시의원, 기자,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김제시의 새로운 미래 비전을 담은 도시브랜드(BI) 개발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최종보고회에서는 그간의 의견수렴 및 선호도 조사를 통해 선정된 도시브랜드 및 캐릭터 디자인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해 4월 용역에 착수해 대국민 인식조사, 온라인 선호도 조사 등을 진행했고 12월 26일 열린 중간보고회에서 최종 9개의 도시브랜드와 리뉴얼된 캐릭터 등이 도출됐는데, 이후 지난 1월 29일부터 2월 3일까지 김제시민 등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선호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평선 생명도시 김제 브랜드가 1순위 최다득표를 받았다.

도시브랜드는 김제(GIMJE)의 이니셜 G와 J를 결합해 하트와 새싹 모양이라는 이중적 이미지를 표현한 것으로, 황금색 계열은 지평선의 황금벌판을, 초록색 계열은 생명이 싹트는 대지를, 파란색 계열은 수평선의 새만금을 상징해 지평선 너머 새만금으로 나아가는 김제시의 미래성장비전을 나타낸다.

새로운 '싸리·콩이' 캐릭터는 지평선 황금들녘에서 생산되는 쌀알과 전국 최대 생산량을 자랑하는 콩을 현대적 감각으로 의인화한 캐릭터이다.

시는 최종보고회에서 도출된 의견을 반영하여 도시브랜드(BI) 최종 디자인을 확정하고, 브랜드 기본형·응용형 개발과 함께 상표권 출원, 디자인 어워드 출품, SNS 이벤트 등을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 완주서 봉제, 레이저 커팅, 목공 배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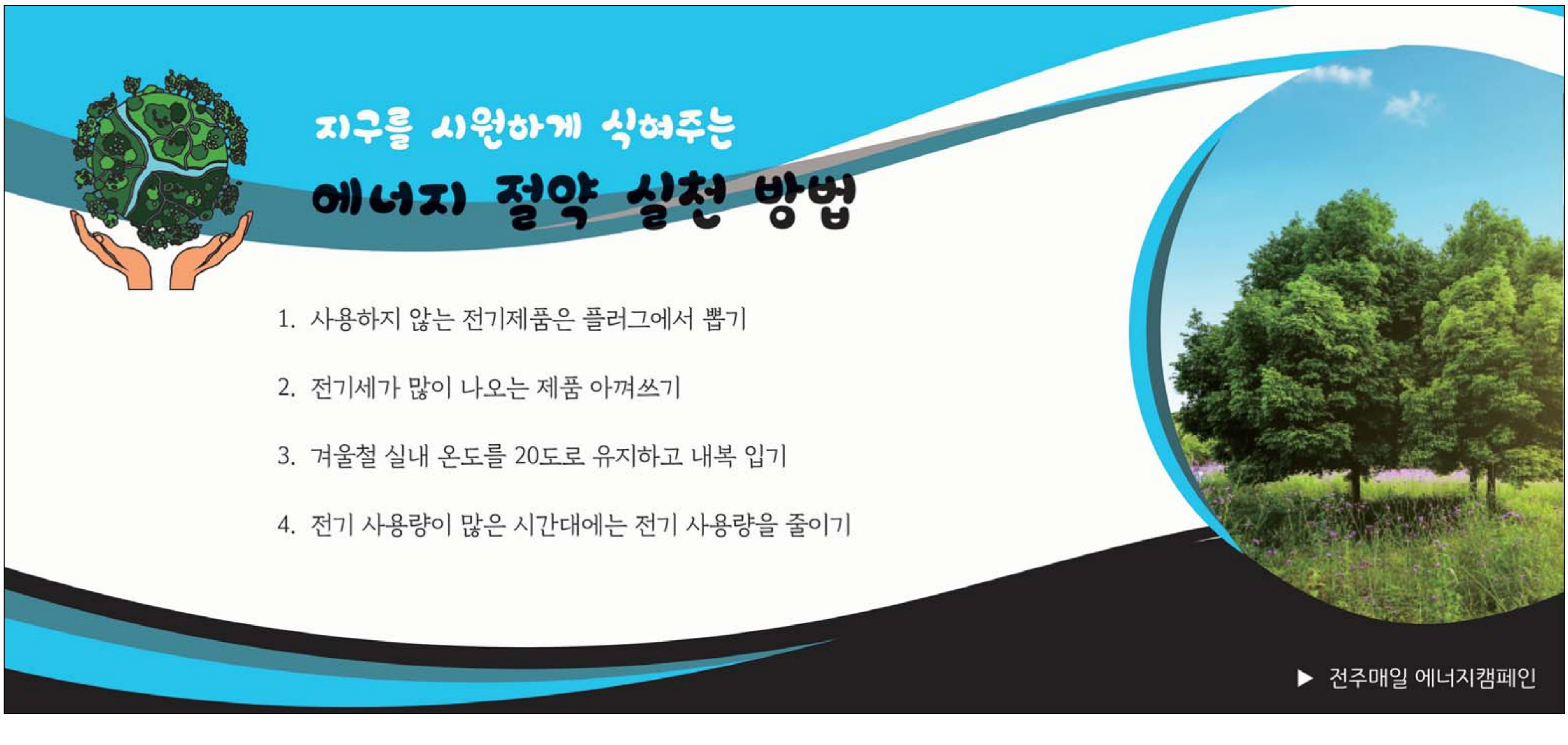
## 창업보육센터, 교육 참가자 모집

완주군이 창업보육센터를 통해 '2024년 장비를 활용한 기술창업 교육(시즌1)'을 진행한다.

지난 3일 완주군은 센터 내 보유 장비를 활용한 이론 및 실습 교육을 진행함에 따라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봉제교실(5월 27일~6월 24일), 레이저커팅기교실(5월 29일~6월 26일), 목공교실(5월 24일~6월 28일) 총 3가지 과정으로 구성돼 있으며, 과정별로 주 1회씩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완주·전주 상생협력사업의 일환으로 모집대상 범위를 전주시까지 확대했으며, 모집인원은 레이저커팅기교실 10명, 봉제교실 10명, 목공교실 7명이다. 모집 기간은 오는 16일까지이며, 완주군 창업보육센터 방문 또는 이메일(opsy999@gmail.com)을 통해 접수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완주군 창업보육센터 홈페이지(https://wj-changup.wanju.go.kr) 또는 완주군 창업보육센터 전화문의(063-290-2487~8)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송미경 경제식품과장은 "이번 교육이 (예비)창업자들에게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다양한 장비 사용법을 통해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완주=염재복 기자